4부 구체적인 지침

죄 죽이기 12편 회개했으니 이제 괜찮다? · 하나님보다 먼저 평안을 말하지 말라

4부 13장 '아홉 번째 구체적인 지침'(174~191쪽)

> ❓ **죄짓고 회개 기도했으면 끝난 거 아냐? 왜 마음이 계속 불편하지?**

🧭 흐름 한눈에

오웬의 마지막 구체적 지침은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평안을 말하지 말라.” 그는 먼저 두 토대를 놓습니다. 위로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양심에 “평안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다음 '내가 만든 평안'을 알아보는 다섯 표지를 제시합니다. 둘째 표지 뒤에는 “성령의 길인지 내가 만든 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네 가지로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위로를 받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체 없이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이 지침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진통제 대신 진짜 치료를 받으라는 초대이고, 참 위로는 반드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아홉 번째 지침: 하나님보다 먼저 평안을 말하지 말라 (13장)

이 지침은 죄책 때문에 불안해진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죄책은 마음속 죄의 뿌리에서 오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터져 나온 데서 오기도 합니다. 오웬은 근거 없이 스스로 평안을 선언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을 축복하는” 큰 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거듭 “스스로 살피라”고 하는 것도 이 착각을 막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위험을 늘어놓아 겁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착각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빠졌을 때 알아차리게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지침을 놓치면 마음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1. 불안할 때 스스로 평안을 선언하지 말 것
2.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
3. 근거 없는 자기 평안은 자기 축복
4. 목적은 겁주기가 아니라 분별

> **★ 이사야 57:18-19 (시리즈 핵심 구절)**
> 고치고 위로하고 평강을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 이 지침 전체의 그림

> **고린도후서 13:5**
> '스스로 살피라'는 성경의 명령을 보여 주는 대표 예시(정리본은 오웬이 이 대목에서 든 구절을 밝히지 않음)
>
>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 2.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13장)

오웬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거룩하게 하실지 정하시는 주권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신 자녀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평안을 말씀하실지는 그분이 정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신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은 탐심 때문에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도 제멋대로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평안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선물입니다.

1.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심
2. 평안의 때와 분량도 하나님이 정하심
3. 위로는 하나님 집안의 특별한 선물
4. 위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5. 평안의 시기는 내 계산 밖에 있음

로마서 9:18

긍휼을 베푸실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주권의 원리

>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3

하나님은 신자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

>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사야 57:16-18

죄로 치신 백성을 하나님이 고치고 위로하심

>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 이사야 57:19 (시리즈 핵심 구절)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입술의 열매, 곧 그분의 권한

📜 3. 양심에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이다 (13장)

위로가 하나님의 주권이듯, 양심에 “평안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상처를 엉터리로 치료해 놓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이유 없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거짓 근거 위에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실상 그대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괜찮다” 하시면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1. 양심의 평안을 선언할 권한은 그리스도께
2. 라오디게아: 거짓 치료 후 거짓 평안
3. 나는 착각해도 주님은 참된 증인
4. 주님은 겉모습이 아닌 실상으로 판단

> **요한계시록 3:14**
> 거짓 평안에 빠진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심
>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 **이사야 11:3**
>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심
>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4. 거짓 평안 ① 죄를 미워하지 않는 평안 (13장)

첫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죄로 괴로워하다가 평안을 얻었는데 그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스스로 말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맞으신 채찍, 곧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도입니다. 겉으로 십자가를 따라 걷는 순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 없이 약속만 바르면, 상처 뿌리는 두고 붕대만 감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 상처는 속에서 곪아 다시 터집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더러움보다 죄가 주는 괴로움을 더 싫어합니다. “죄의 사탕을 혀 밑에” 둔 채 자비를 구하는 셈입니다.

1. 죄를 미워함이 빠진 평안은 거짓
2. 찌른 그리스도를 보면 애통이 따라옴
3. 믿음은 그리스도가 맞으신 채찍을 봄
4. 붕대만 감은 상처는 곪아 다시 터짐
5. 괴로움만 싫고 죄는 좋은 상태 주의

> **스가랴 12:10**
> 찌른 이를 바라보면 애통이 따른다
>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이사야 53:5**
> 평안을 구할 때 믿음이 바라볼 곳: 그분의 징계와 채찍
>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에스겔 16:60-61**
>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함
>
>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경건한 근심에는 죄에 대한 '분함'이 따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욥기 42:6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자리에서 욥이 온전히 회복됨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시편 78:34-37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이 정함 없어 평안이 사라짐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일서 2:15

세상 사랑을 품은 채 위로만 구하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낮추시는 평안이고 마음을 녹이시는 평안이다."

📜 5. 거짓 평안 ② 이성으로 결론 낸 평안 (13장)

둘째 표지는 내 추론만으로 평안을 결론짓는 경우입니다. 양심이 고발하면 지식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약속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상처에 맞으니 바르면 낫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이것은 내 지성의 작업일 뿐일 수 있습니다. 오웬은 거듭난 사람도 영적 생명이 아니라 타고난 이성 같은 낮은 원리로 움직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7이나 호세아 14:4를 붙들면서도 “성령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나?”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웬은 이를 평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라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불러 참 평안을 주십니다.

1. 맞는 구절 찾아 붙이기 ≠ 성령의 위로
2. 깨우치는 일은 성령의 사역
3. 신자도 낮은 원리로 움직일 때가 있음
4. 기다리지 않으면 평안을 '훔쳐 달아남'
5. 하나님은 다시 불러 참 평안을 주심

> **요한복음 16:8**
>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
>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이사야 55:7**
> 지성이 찾아 스스로 적용하기 쉬운 용서의 약속 예
>
>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 **호세아 14:4**
> 같은 방식으로 붙잡기 쉬운 '고치리라'는 약속 예
>
>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 6. 성령의 길인지, 내가 만든 길인지 어떻게 아는가 (13장)

오웬은 이 질문에 네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곧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가린 채 안주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잎과 거기서 얻은 평안을 걷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택한 길은 대개 내 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은혜이고,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즉시 상하게 하고 즉시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집 나간 자녀를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게 하시고, 너무 부끄러워 서성이는 자는 손잡아 들이십니다. 셋째, 이성으로 정한 길은 머리는 편하게 해도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와 감정까지 어루만져 영혼을 안식으로 돌려보냅니다. 넷째, 내가 만든 평안은 삶을 바꾸지 못해 며칠 뒤 같은 상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 줍니다.

1.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곧 알려 주심
2.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은혜
3. 조급함은 자기 처방의 표지
4. 참 평안은 머리 아닌 마음의 안식
5. 참 평안은 삶을 바꾸고 재발을 막음

> **시편 25:9**
> 온유한 자를 바른 길로 지도하신다는 약속
>
>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 **시편 130:6**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를 기다림
>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이사야 8:17**
>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열왕기하 5:19

"평안히 가라"는 말에 생긴 안심과 믿음의 안식의 차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미가 2:7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을 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시편 116:7

참 말씀은 영혼을 안식으로 돌아가게 함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85:8

하나님의 평강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않게 함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 7. 거짓 평안 ③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평안 (13장)

셋째 표지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지도자들은 백성의 상처를 대충 싸매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습니다. 오웬은 오늘도 약속을 한 번 흘낏 보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2는 들은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아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약속은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잘 버무려 먹고 끝까지 소화해야 약효가 납니다. 서둘러 해치운 평안은 곧 다시 덧납니다.

1. 상처를 가볍게 보면 말뿐인 “평강”
2. 약속을 흘낏 보는 것 ≠ 고침
3. 말씀에 믿음을 섞어 소화해야 함
4. 서둘러 해치운 평안은 다시 덧남

> **예레미야 6:14**
>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거짓 평강을 외침
>
>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 **히브리서 4:2**
>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음
>
>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 8. 거짓 평안 ④⑤ 다른 죄를 남겨 둔 평안, 낮아지지 않는 평안 (13장)

넷째 표지는 한 가지 죄는 다뤘지만, 하나님이 아직 다루지 않으신 다른 큰 악이 영혼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소홀했던 의무 때문에 괴로워하다 평안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 사랑이나 교만이 여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똑같이 존중할 때 평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지만,

녹입니다. 나단에게서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 다윗이 깊이 낮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1. 다른 죄를 품은 채 얻은 평안 주의
2. 모든 계명을 같이 존중할 때 평강
3. 하나님은 작은 죄도 옳다 하지 않으심
4. 참 평안은 사람을 낮추고 녹임
5. 다윗은 용서의 소식 앞에서 가장 낮아짐

> **하박국 1:13**
>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악을 용납하지 않으심
>
>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 9. 언제 약속의 위로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13장)

여기서 이 편은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언제 위로받아도 되나?”라는 질문에 오웬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빠르든 늦든, 내 상태가 만족스럽든 아니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받아야 합니다. 그는 반대쪽 위험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위로를 불신과 두려움으로 밀어낼 때 하나님은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아나?”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보는 은밀한 감각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신부가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낮추고, 깨끗하게 하고, 녹여 순종하게 한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별을 놓치면 죄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분별을 붙들면 참 위로는 반드시 옵니다.

1.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받기

3.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음
4.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함
5. 낮추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그분의 것

★ 이사야 57:18 (시리즈 핵심 구절)

"내가 그를 고쳐 줄 것이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 거절하지 말아야 할 위로

요한복음 10:4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 분별의 근거

>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누가복음 1:44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면 믿음이 기뻐 뜀

>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가 5:2

친밀한 신부는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즉시 앎

>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 5:4

그리스도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마음을 움직이심

>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누가복음 24:32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함

>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평안: “기도했으니 리셋, 근데 그 죄는 여전히 좋아”	찌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죄가 미워지고 애통이 따라오는 평안
이성으로 결론 낸 평안: 맞는 구절을 찾아 붙이고 “논리상 난 용서받았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살아 있게 주셔서 영혼이 안식하는 평안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평안: 약속을 흘낏 보고 “됐다”	말씀에 믿음을 섞어 천천히 소화하며 고침을 받는 평안
다른 죄를 남겨 둔 평안: 한 죄만 정리하고 교만·세상 사랑은 그대로	모든 계명을 똑같이 존중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다 내어놓는 평안
낮아지지 않는 평안: 회복되자마자 다시 당당하고 가벼워짐	용서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녹아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평안

오른쪽 칸의 평안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고쳐 줄 것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이사야 57:18-19)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죄 죽이기는 내가 나를 괴롭혀 평안을 사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남아 있어 계속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성향.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책임,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양심의 무게.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마음의 법정.

복음적 회개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속 머무시며 생명과 힘이 되시는 것.

스스로 말한 평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판단이나 감정으로 “이제 괜찮다”고 결론 내린 평안.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용서와 고침의 약속.

경건한 근심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슬퍼서 생기는 근심. 후회 없는 회개로 이끈다(고린도후서 7:10-11).

자기혐오
나를 미워하는 우울감이 아니라, 죄 앞에서 내 추함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평안은 내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선언하시는 선물이다.
- 죄를 미워하지 않고, 머리로만 결론 내고, 상처를 가볍게 보고, 다른 죄를 나라고 나아지지 않는 평안을 가짜다.

- 참 평안은 그리스도가 맞으신 채찍을 바라보는 데서 오고, 나를 낮추고 녹여 다시 그 죄로 가지 않게 지킨다.
-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위로를 받는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13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5)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